

<동정자료>

맹성규 제2차관, “무인항공기 테러 가정한 재난대응 훈련” 참석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행

□ 국토교통부는 11월 2일(목) 고양시 및 파주시 주민 약 60만명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고양시 소재 고양정수장에서 맹성규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과 합동*으로 용수공급 중단에 대비한 안전한국훈련을 시행했다.

* 국토교통부, 한국수자원공사, 고양시, 일산동부경찰서, 일산소방서, 육군제9사단, 명지병원, 에코엔 등 9개 기관 약 80여명 참석

□ 이날 훈련은 최근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무인항공기 ‘드론’에 의한 폭발물 투하 테러로 인명피해와 정수장 시설물이 파괴되어 고양시와 파주시 일부 지역에 단수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되었으며,

○ 대규모 재난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초동대응과 재난관리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집중 점검하여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위기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.

□ 기후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재난관리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훈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으며,

○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훈련에 참여한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,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평상시 본인의 역할과 임무를 숙지하고, SNS활용 등을 통한 유관기관간 소통체계 마련하여 실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
2017. 11. 3.

국토교통부 대변인